



LCSI 성격검사 (일반)

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Lim's Assessment Center

Lim's Assessment Center is a research-based consulting firm that used comprehensive suite of personality assessments to help companies select employees, develop leaders, and identify talent

Basic Report

검사일시	:	2024-11-29
기관명	:	림스연구소
성별	:	여
성명	:	임일락 님



Lim's A.C.™

림스연구소의 허락 없이 이 결과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공개, 배포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2002 림스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LCSI(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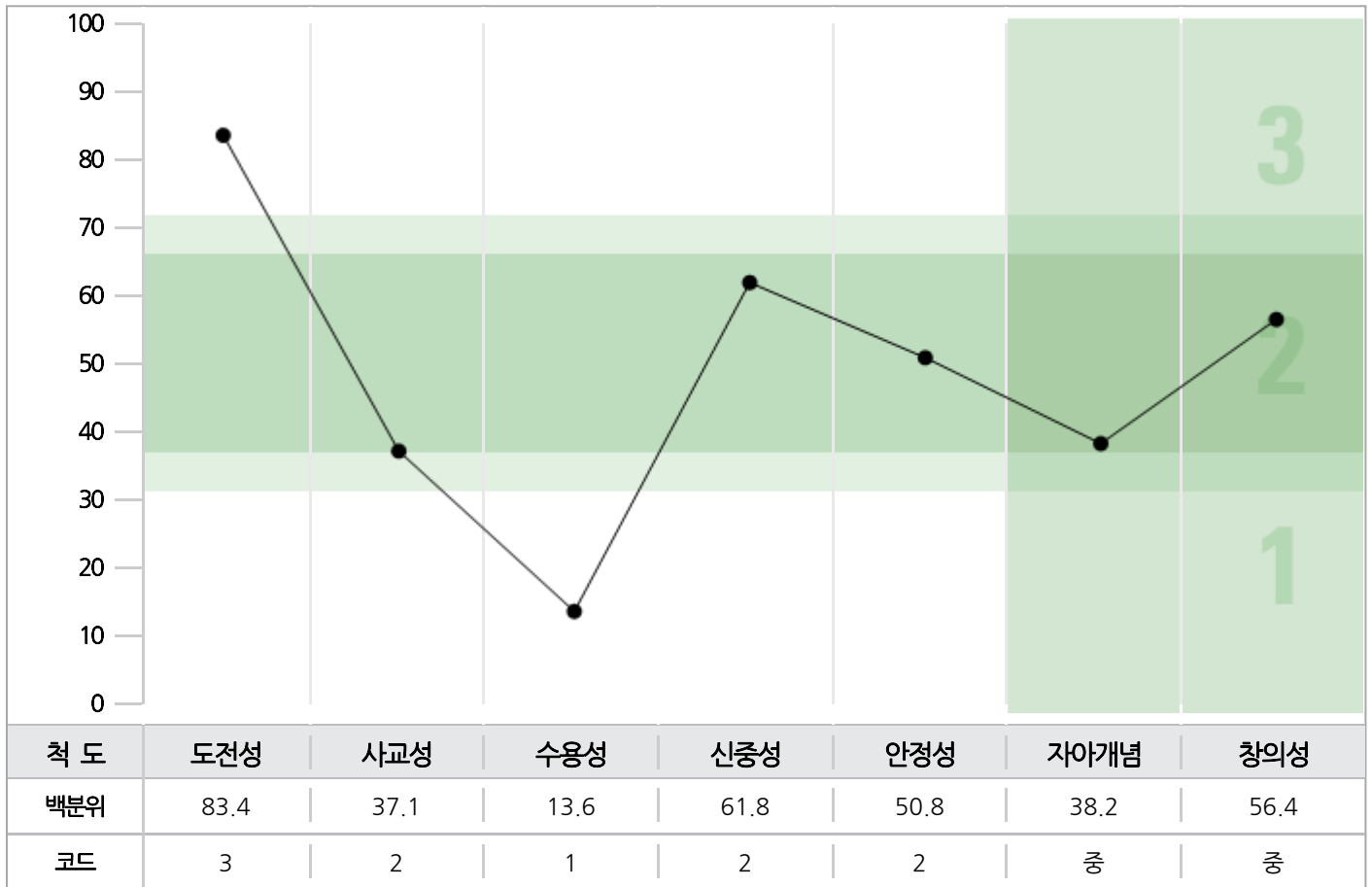
7가지 특성강도를 꺾은선으로 연결하여 개인의 성격(性格)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 일관성

불성실응답	성실응답(-)	성실응답(+)	매우성실응답
정서가 안정적이고 검사를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방어적절(+) ^{이상} 일 때는 긍정 왜곡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긍정 왜곡

자기방어낮음	자기방어적절(-)	자기방어적절(+)	자기방어높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징후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만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리적으로 뚜렷한 불편함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LCSI 프로파일은 개인의 원점수를 해당 모집단(母集團)의 기준치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백분위로 나타내고 있다.

프로파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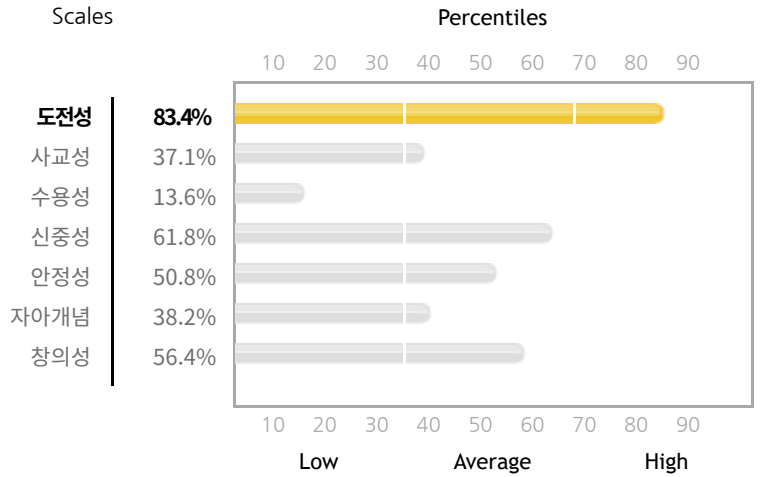
-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독립적
- 돌발적인 사태에 대응하는 순발력
-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
- 정서통제취약
- 긴박감 조급함 등으로 인한 과잉긴장 경험
- 협동하기보다 경쟁적이고 논쟁적

성격특성은 여러 가지 자극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적 조건은 현재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LCSI 프로파일을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전성 (83.4%)

높은 성취욕과 경쟁적인 태도를 반영하며 목적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역경에 맞서는 강인함을 측정하는 차원이다. 세부특징으로는 높은 자기 주장성, 신속한 의사결정, 목표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상황에 대한 통제욕구 등을 들 수 있다.



임일락님의 도전성 측정결과

높은 성취와 큰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야망이 있다. 핵심파악을 잘하고 결단력이 있다. 담력이 좋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기 방식대로 일을 풀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이나 아이디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육감적으로 알아내는 독특한 정신 능력이 자신에게는 있다고 믿는다. 머리를 많이 쓸 수 있는 지적 관심사와 취미 거리를 즐겨 찾고, 고정된 하나의 해결책이나 생활방식을 따르기보다 변화와 혁신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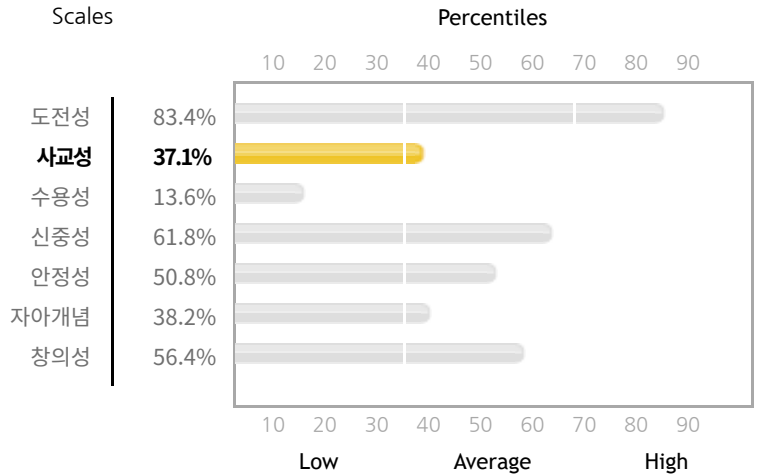
도전성에 대한 연구결과

- 개인이 적대적 환경과 마주치거나,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게 될 때 필요한 적극적인 성격특성으로서 인간의 가장 원시적 생존본능인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Marston, 1928). 성취와 자극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있다. 특성이론상으로는 충동성(Zuckerman, 1983; Gray, 1970)이나 야망(Hogan, 1986)과 유사한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높은 에너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외향적 특성으로 대인관계보다는 과업 지향적이다. 사회생활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성격특성으로서 경쟁과 성취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해결시 강한 집중력과 신중한 사고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전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 중심의 사교성보다는 목적중심의 추진력 (Impulsive forces)을 많이 가지고 있다.
- 도전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활동성이 높고 원기 왕성하며,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권위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잘 드러낸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판단한다.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성향이고, 남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적극적으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간다. 머리를 많이 쓸 수 있는 지적 관심사와 취미거리를 즐겨 찾고 변화를 좋아한다.
- 사춘기와 같은 과도기적 성장단계에서 도전성이 높으면 다소 공격적이고 겁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감정 절제가 쉽지 않고 언어적 공격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식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건강한 도전성으로 발달해 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과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전성이 높으면 순응하고 양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공격적 언어의 사용과 적대감의 통제가 쉽지 않다. 또한 유능성에 대한 갈구가 크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도전성과 사교성, 자아개념은 약간의 긍정적 관련성이 있지만, 도전성과 안정성은 상호 독립적이다.



사교성 (37.1%)

폭넓은 대인접촉욕구와 낙천적인 생활태도를 반영하며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과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교능력을 측정하는 차원이다. 세부특징으로는 낙천적정서, 감정개방성, 높은 언어활력, 환경적응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임일락님의 사교성 측정결과

뚜렷한 특징을 유추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사교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타고난 성향을 확인하고 주어진 환경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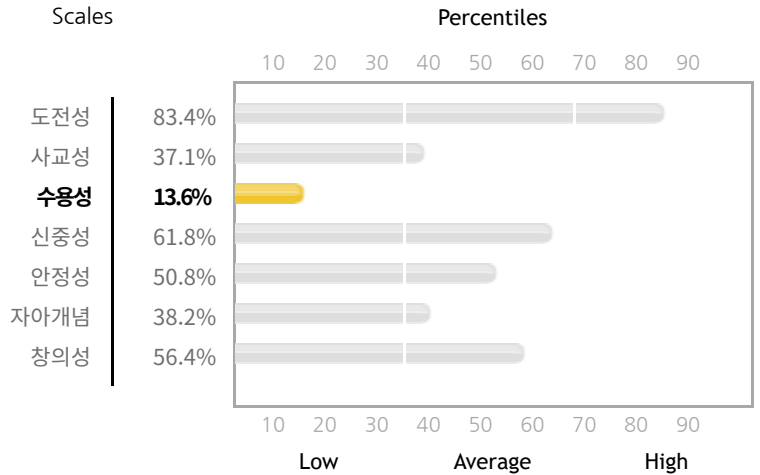
사교성에 대한 연구결과

- 개인이 낯설고 다양한 환경을 대할 때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적응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낙관적이며 사교나 행동이 개방적이다. 대인관계 중심의 다양한 표현능력과 정서적 순발력 등을 고려할 때 심리학적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정서지능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Goleman, 1995; Seligman, 1990).
- 주변 환경과 대상을 활용하여 적절히 상황에 대처하는 주도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남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필요한 성격특성으로서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교성이 높으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불쾌감을 주지 않고 갈등에 관련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어유창성이 높기 때문이다.
- 사교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것과 동시에 어른이나 선생님으로부터도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주변의 긍정적 관심을 통해 신중성과 관련된 행동과 태도들을 학습할 수 있다. 체계적인 교육 환경과 제도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학습 과정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사교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높고 활동적이며, 누구하고나 대화를 잘하고 스스럼없이 사람들과 잘 사귀다. 명랑하고 활기차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고 표정이나 몸짓이 자연스러우며, 말을 잘하고 동시에 말하는 것을 즐긴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 사교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고, 낯선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한다. 양보심이나 순응성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약간 공격적일 수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연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수용성 (13.6%)

깊은 인간관계 형성욕구와 무조건적 존중의 태도를 반영하며 타인중심적인 친화력과 상대방을 협조적으로 배려하는 온정적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이다. 세부특징으로는 이타성, 순응성, 감정억제능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임일락님의 수용성 측정결과

출세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고, 부지런하고 바쁘게 지낸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며,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맡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야단맞을 짓을 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충고한다. 쉽게 동정을 베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보다 일의 성취와 문제해결에 관심이 더 많다. 생동감 있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하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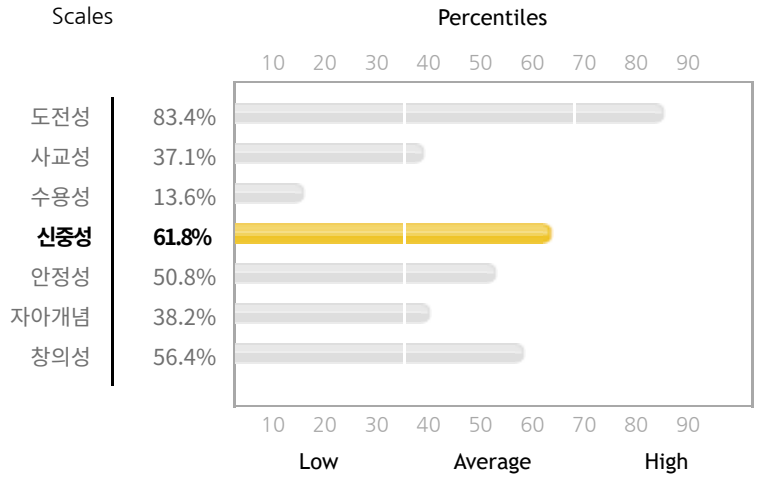
수용성에 대한 연구결과

- 생물학적 기반은 반응속도가 완만하고 느린 신경계통이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이다. 집단의 안녕과 조화로운 대인 관계를 지향한다. 타인들이 함께 지내기 쉽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상호협력을 끌어내는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내향적 특성으로써 밀접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려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감정이입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타인중심적인 친화력이 높다. 절제력, 인내심, 집중력 등과 같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충동통제가 잘 되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침착성과 관련이 있다.
- 수용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과도한 목표의식이나 과잉활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자극을 피하고 조용한 생활을 추구한다. 안정적 환경에서 성취동기를 잘 유지한다.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는 친화적이지만 낯설은 환경에서는 비활동적이고 비주장적인 속성을 보일 수 있다. 빠른 판단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심한 긴장과 에너지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 수용성이 높으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솔직한 감정이나 의견을 대인관계에서 잘 드러내지 못해 내부적으로 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연장자나 권위자 앞에서 불편을 느낀다. 집단을 대변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결정해야하는 리더역할을 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르지 않고, 담력이 약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수용성이 높으면 인간관계에서 배려를 잘하지만, 목표에 대한 집착력과 자기효능감이 약하다. 또한 정서적인 활력이 낮고, 언어적인 유창성이 부족하여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한다. 수용성이 높을 때 도전성이나 사교성이 함께 높아진다면 많은 긴장을 일으킨다.



신중성 (61.8%)

원칙이나 목표에 대한 충실성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통제능력을 측정하는 차원이다. 세부특징으로는 자기절제, 근면성, 예측능력 그리고 질서정연한 생활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임일락님의 신중성 측정결과

뚜렷한 특징을 유추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 충동통제를 잘하는 신중한 성향을 완화한 것인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타고난 성향을 확인하고 주어진 환경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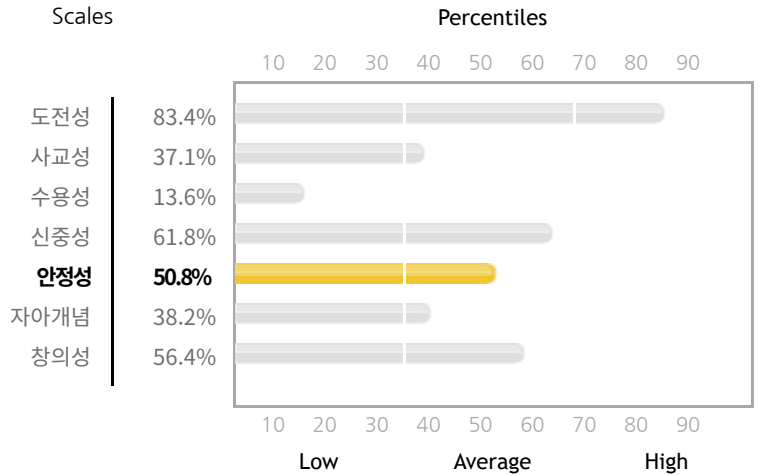
신중성에 대한 연구결과

- 개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과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반응을 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충동성의 통제로 정의할 수 있다.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억제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속성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인지적 기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생활패턴으로 정서적 안정을 담보하는 요인이다. 과제수행에서 치밀하고 근면 성실하며 자신의 내적 원칙에 충실하다. 비사교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외적 특징을 직접관찰하기가 어렵다. 성취지향적인 장시간의 독립적 작업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속성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중성이 높으면 참을성이 강하고, 감정 충동성이나 불필요한 긴장을 잘 관리하여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 어느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이나 의견을 대인관계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소에 자신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고 연출하려는 의지가 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화나 분노가 적다.
- 신중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판단하여 목표달성에 집중한다. 특정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동원하여 탐구하는 성향으로, 절제력있고 체계적이며 성실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좋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동성을 잘 억제하고 관리한다.
- 신중성은 사회적 성공과 인상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특성이다. 긍정적 방향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려 할 때 사회적 평가를 의식한 허위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환경의 요구나 학습에 의해서 긍정왜곡(Faking-good)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이다.



안정성 (50.8%)

다양한 성격특성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부정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내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는 스트레스내성이다.



임일락님의 안정성 측정결과

뚜렷한 특징을 유추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안정성이 손상된 상태인지, 천성이 섬세하여 안정성이 원래 높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타고난 성향을 확인하고 주어진 환경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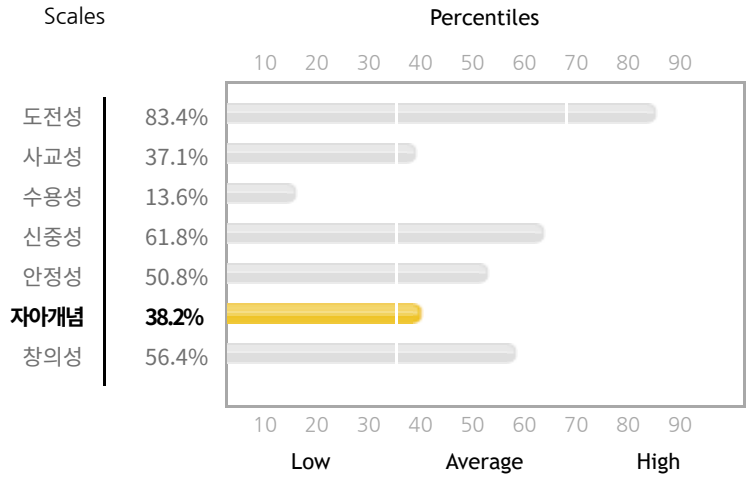
안정성에 대한 연구결과

- 건강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자아강도와 유사하다. 쉽게 감정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심리적 안정성을 의미한다. 과업보다는 대인관계 장면에서 정서적인 형태로 그 특성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 특성은 심각한 정신병리와는 무관하고 대인관계와 관련이 깊다.
- 안정성은 부정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조절하는 충동통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키지 않고, 개인의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안정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안정성이 높으면 원만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긴장이나 불안이 적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우울하거나 외롭지 않고, 예민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Faking-good)
- 안정성이 낮으면 감정을 절제하는데 서투를 가능성이 있다. 안절부절, 돌출행동, 주의산만, 그리고 인내력 부족과 같은 행동이 드러나고, 감정적인 충동성이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거친 행동이나 언어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 긴장을 쉽게 경험하고 현실 회피 방어기제들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 안정성이 높으면 긍정적 방향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향성과 상관성이 있고, 신중성이나 자아개념이 함께 높아지는 경우에는 긍정왜곡을 의심해봐야 한다. '집중력과 인내력'은 안정성과 긍정정인 관련성이 있지만, 높은 양보심은 안정성을 낮추는 부정적 요인이다.



자아개념 (38.2%)

한 개인이 자신의 성격, 신체외모,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해서 형성한 지각내용이나 평가적 관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의 정도이다.



임일락님의 자아개념 측정결과

뚜렷한 특징을 유추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 실제적인 근거가 있어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 것인지, 원래 타고난 천성이 들뜨지 않고 겸손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타고난 성향을 확인하고 주어진 환경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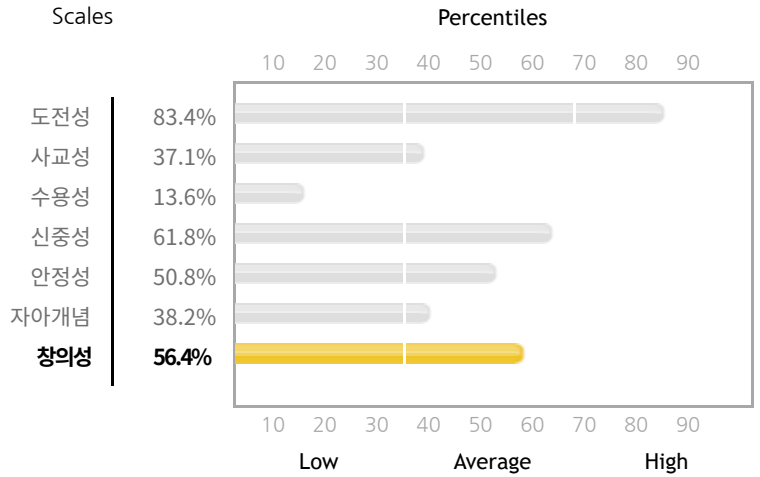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결과

- 자아개념은 과거 경험의 결과이지만 미래 행동의 동기가 되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것으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자아개념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인은 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수용적 태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도 교사나 상사와의 관계의 질에 의해서도 개인의 자아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 자아개념이 높으면 낯선 자극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려는 탐색동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곤란이나 위험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타고난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개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 자아개념이 높으면 직접적이고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만, 낮을 때는 언어적 반응보다는 간접적이고 철수적인 방어형태를 취한다.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서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향형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향적 특성인 수용성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높지 않을 수 있다.
- 기질관련 특성들 중 사교성, 신중성, 안정성은 자아개념을 예견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 척도만을 단독으로 활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신중성-안정성-자아개념의 동시 상승은 이미지 왜곡을 통한 부풀리기(Faking-good)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자아개념이 낮으면 일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의지가 부족하여 일을 끝까지 다 못할 때가 있다. 하던 일이 어려워지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고, 모든 일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인상을 연출(Faking-bad)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창의성 (56.4%)

관습적인 것을 벗어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사고기능과 행동경향성이다. 영감과 직관의 활용, 상상과 공상을 통한 내면적 정신활동,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것에 대한 높은 관심,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탐색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임일락님의 창의성 측정결과

뚜렷한 특징을 유추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 창의성은 환경적응과 독립적이다. 시간이 흘러도 점수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학습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다. 타고난 성향을 확인하고 주어진 환경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결과

- 어떤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성, 교양, 심지어는 지능이라고 부른다. 타고난 지적능력과 정신기능을 어떤 대상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기 좋아하느냐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개방성, 창조성, 비관성, 상상 등과 아주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 개인의 내면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후천적으로 학습한 성향보다는 선천적인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시간 경과나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척도의 높낮이가 좋고 나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창의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사색을 좋아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한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념하여 몰두하는 인지적 욕구가 강하다. 가상의 상황을 즐기고 풍부한 내면세계의 구축과 의식의 확장 등에 관심이 많다.
- 창의성이 높으면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정서적 활력이 있고,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 도전성과 사고성은 창의성과 약간의 긍정적 관련성이 있고, 수용성과 신중성은 약하긴 해도 창의성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안정성은 창의성과 관련성이 없는 편이다.
- 창의성이 낮으면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기 좋아하고, 삶에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한다. 구체적이고 경험 지향적이며, 직면한 관심사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를 좋아한다. 그와 동시에 상식을 중시하고 전통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위 21척도 측정결과

각 척도의 3가지 하위척도 간에 편차가 클 때는 현재 생활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척도 구분	하위척도	백분위	측정결과				
도전성 (83.4%)	판단력	65.2%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제압력	87.5%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승부욕	79.4%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사교성 (37.1%)	감성활력	25.8%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친화력	56.0%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언어활력	50.8%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수용성 (13.6%)	양보심	18.9%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순응성	14.2%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자제력	23.3%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신중성 (61.8%)	자율성	43.6%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완결력	70.5%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계획성	66.3%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안정성 (50.8%)	감정충동성	80.8%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과잉배려	22.1%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심약성	30.5%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자아개념 (38.2%)	자기만족	38.2%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자기긍정	19.2%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자기효능감	67.7%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창의성 (56.4%)	지적연상력	46.4%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탐색동기	62.6%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공상	51.2%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LCSI(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성격분석

일반성격

- 외향적이고 승부욕이 강하다. 남들이 겁내는 문제나 모험을 게임 하듯이 흥미롭게 즐긴다. 인기를 얻기보다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하므로 논쟁이나 대립을 겁내지 않는다.
- 핵심을 빨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제에 어긋나거나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듣기 힘들어 한다.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나 모순점을 빨리 알아채며 자신의 결론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

대인관계

- 갈등이나 긴장을 유쾌하게 잘 넘어가고 친구들로부터 사교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인간관계 그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평소 냉정하고 계산적이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말 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 반대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거만하게 보일 수 있으며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아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는다. 대인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서툴다.

직업적성

- 지위나 부를 다룰 수 있고 적극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매력을 느낀다. 담력이 좋아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위축되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기개발에는 노력이 떨어진다. 활동적이고 승부욕이 강하며 심리적으로 강인하다. 경쟁이 장려되고 확실한 결과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 직업영역: 모험적이고 활동적인 직업군으로 정치가, 기업가, 조직의 대표(CEO), 야전군인, 파일럿, 전문경영인, 수사전문가, 시장개척 마케팅, 정치가, 혁신전문가, 스포츠팀 감독, 행정전문가

유의점

- 자기중심적이고 목적위주의 인간관계 패턴 때문에 사람들이 미묘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급하고 행동 지향적이라 주변 사람의 감정을 억압하여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사람들의 개인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한다.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강한 도전의욕에 걸 맞는 생산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절차를 중시하는 꼼꼼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도 필요하다.



캐릭터 탐색

인간에게는 캐릭터라고 부르는 본능적 성향이 무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그것은 유전적 체질적으로 결정된다. 캐릭터는 생존기제와 같은 것이므로 그 심리적 법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식하여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자아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구분	주도형	표출형	우호형	분석형
자가추측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추측은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개인의 소망에 따른 캐릭터의 왜곡이 흔히 발생한다. 개인의 확증편향으로 인한 캐릭터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캐릭터 추론 절차를 통해 여러 주변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코드 캐릭터 분포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V'표시는 해당 캐릭터의 경험적 분포가 40%이상으로 우선적 탐색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경험적 분포 비율은 확률적 지표로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개인의 변조된 캐릭터까지 변별해 낼 수는 없다. 0%분포 일지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p>자신이 생각한 캐릭터는 주도형이었습니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한 캐릭터 확률은 주도 54.79% 표출 10.96% 우호 9.59% 분석 24.66% 이며, 이에 기반한 검사예측 캐릭터도 주도형입니다. 주도형은 남의 눈에 잘 띄는 형으로 적극적인 대인관계와 선 굵은 모습이 그 특징입니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진취적이며 과감하고 사교적 능력보다는 지적인 역량을 중시하는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충분한 내적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정확한 캐릭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4-캐릭터와 주요 특성과의 관계

	높은 특성	선택적 연합	낮은 특성
주도형	도전성 ▲	사교성, 신중성	수용성 ▼
	도전성이 핵심특성을 이루면서 사교성이나 신중성이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용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출형	사교성 ▲	도전성, 수용성	신중성 ▼
	사교성이 핵심특성을 이루면서 도전성이나 수용성이 함께 상승할 수 있지만 신중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호형	수용성 ▲	사교성, 신중성	도전성 ▼
	수용성이 핵심특성을 이루면서 사교성이나 신중성이 함께 상승할 수는 있지만 도전성이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분석형	신중성 ▲	도전성, 수용성	사교성 ▼
	신중성이 핵심특성을 이루면서 도전성이나 수용성이 함께 상승할 수 있지만 사교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캐릭터 추론

타고난 캐릭터 유형은 고유한 언어적 특징 외에도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얼굴표정, 목소리의 특징, 음성 톤, 자세, 손동작 등과 같은 비언어적 특징이 존재한다. 캐릭터는 한두 가지 특징만으로는 확정할 수가 없고, 현실 생활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행동 지표를 통해 통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4-캐릭터 관찰단서

	주도형	표출형	우호형	분석형
언어 표현	명령, 직선적, 건조한, YES/NO 분명, 억양이 강하고 힘있음	즉흥적, 과장법, 감탄사, 미사여구, 말이 많고 빠름	우회적, 동조적, 말끝 흐림, 높낮이 없음, YES/NO 불분명	운율 없음, 논리적, 감정배제, 비판적, 사무적
감정 표현	강한 눈빛, 제압적 표정, 이동반경 큼, 흥분하면 격한 단어사용	생각 감정이 얼굴에 드러남, 눈맞춤, 대중 의식, 스킨쉽	작은 몸짓, 표정변화 적음, 고개 끄덕임, 적은 행동반경	무표정, 제스처 없음, 생각은 많고 표현적음. 눈맞춤 어려움
대화 패턴	핵심만 간단히, 특정주제 중심	활달하고 반응이 큰, 분위기 조성	들어주고 동의하는, 인간적 담소	들으면서 따져보는, 할 말만 함
자세/손동작	자주 변하지 않으나 동선이 큼, 직선적인 손동작	자주 변하고 과장된 몸짓, 다양하고 자유로운 손동작	움직임의 폭과 동선이 크지 않음, 간 손동작이 많음	자세 변화가 적고, 안정적, 손동작이나 신체적 움직임 적음

4-캐릭터 추론 매트릭스

	주도형	표출형	우호형	분석형
반응속도	빠르다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활력	높다	높다	낮다	낮다
판단중심	자기중심	타인중심	타인중심	자기중심
우선가치	목표중심	관계중심	관계중심	목표중심



나는 누구일까?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타고난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격에도 선천적인 심리적 골격과 그에 따른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들이 있다. 그것들 중 캐릭터관련 핵심특성(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은 여러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기본특성

- 도전적 목표에 대한 성취 욕구가 강하다.
- 자각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다.
- 냉철한 판단력이 있다.

• 스트레스 행동

- 강압하고 명령적이며 더욱 더 감정을 억제한다.
- 차갑고 강한 눈빛으로 직시하며 단조롭고 강한 음성으로 얘기한다.
- 더욱 일 중심이 되며 자신의 방식을 강하게 고집한다.



• 긍정 피드백

- 똑똑하고 유능하다.
- 자신감이 있다.
- 추진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한다.
- 믿음직스럽다.

• 부정 피드백

- 목소리가 크고 말투가 사납다.
- 성급하고 강하다.
- 자기 밖에 모르고 잘난 척한다.
- 가르치려고 한다.

• 기본특성

- 전형적인 외향형으로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다.
- 감정표현이 풍부하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긴다.

• 스트레스 행동

- 강한 동작과 고성으로 비난하고 감정적 통제를 하지 못한다.
-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대치한다.
- 감정적으로 논쟁한다.



• 긍정 피드백

- 언어표현력이 좋다.
- 분위기 메이커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 주위에 사람이 많다.
-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다.

• 부정 피드백

- 가볍고 말이 많다.
- 감정기복이 심하다.
- 나대고 덜렁댄다.
- 오지랖이 넓다.

• 기본특성

- 정서적 이완을 즐긴다.
- 균형 감각이 좋고 감수성이 높다.
- 상대를 배려하고 협조를 잘한다.

• 스트레스 행동

- 협조하기 보다는 동조한다.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동의한다.
- 동의한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 긍정 피드백

- 편안하고 무뎠다.
- 마음이 따뜻하고 잘 챙겨준다.
- 굵은 일에도 헌신적이다.
- 팀워크와 조화를 중시한다.

• 부정 피드백

- 우유부단하고 정리가 잘 안된다.
- 너무 자잘한 일에 신경을 쓴다.
- 고지식하다.
- 느리고 의욕이 없다.

• 기본특성

- 집중력이 높고 인내심이 강하다.
-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며 논리적이다.
- 어려운 상황에서 차분하고 생각이 깊다.

• 스트레스 행동

- 뒤로 빼거나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 감정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자신의 속 꿍임을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 한다.



• 긍정 피드백

- 생각이 깊고 실수가 없다.
- 언행이 일치한다.
-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
- 손갈 데가 없다.

• 부정 피드백

-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다.
-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 재미없는 사람이다.
- 지나치게 꼼꼼하고 조목조목 따진다.



LCSI 4-캐릭터 유형론

4-캐릭터 유형론은 한국인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험적 이론이며, 자료 분석결과 전통적인 기질유형론과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반복관찰을 통해 파악한 유형별 중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p>과업 지향적 목표의식이 강하다.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고 승부욕이 강하다.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이고, 목적이나 주제가 없는 잡담을 싫어한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단 앞에 나서는 경향이 있지만, 대중 속에 휩쓸리는 것을 싫어하는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으로 오인 받는 수가 있다. 결과를 중시하고 빠르고 행동 지향적이다.</p> <p>반응속도가 빠르고 냉철하다. 분명하고 간결한 것을 좋아한다. 자신감이 강하고 강직하며 흑백논리의 경향이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담력이 있고 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목표달성을 위해서이다.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것을 선호한다. 과감하고 판단력이 좋아 보스기질이 있다.</p> <p>언어표현이 직선적이고 강하다. 목소리 톤이 높고 말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자기중심적 판단이 강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좋아한다. 애매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싫어한다. 행동은 활발하고 역동적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p>	<p>적극적인 소집단 활동과 사교적 인간관계를 통해 심리적 에너지를 발달시킨다. 소속욕구가 강하고 인간관계에서 협력하고 격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즐긴다. 소외될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내성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고 정열적이다. 호기심이 강하여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외향형이다.</p> <p>먼저 말을 건네고 인사하는 편이며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긴다.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유희적 활동을 선호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며 사소한 것이라도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즉흥적이고 쉽게 흥분하여 성급해 보인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p> <p>유머감각이 있고 어휘구사력이 좋다. 맞장구치기를 좋아하며 눈 마주침과 신체언어를 잘 활용한다. 침묵을 싫어하고 정서적으로 밝다.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훨씬 좋다. 개방성, 유머, 감정의 솔직성 등으로 인해 주변에 사람이 쉽게 모여든다.</p>
<p style="text-align: center;">[주도형]</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형]</p> <p>기준과 원칙을 중요시한다. 완벽을 추구하여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집중력이 좋고 인내력이 강하여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 한다. 신중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수행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독립적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한다. 모든 사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문제해결에 강한 내향형이다.</p> <p>이성적이고 비사교적이며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을 싫어하여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절제가 강하여 자신과의 싸움에는 능하다. 감정변화가 적기 때문에 차갑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즉흥성을 요구하는 활동에서는 심한 에너지 소모를 경험한다. 충동통제가 잘 되어 감정표출이 드물다.</p> <p>말보다는 서면(書面) 의사소통을 좋아한다.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으며 말 수가 적다. 시선 맞추기를 어려워하고 자세변화가 적다. 잘 듣는 편이지만 자기중심이 강하고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에 강하다. 농담이나 사교적 잡담을 잘 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출형]</p> <p style="text-align: center;">[우호형]</p> <p>전반적으로 낮가림과 긴장을 자주 경험한다. 외견상 침착해 보이지만 긴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차갑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반응속도가 느려서 긴장이 없고 평화로운 환경을 선호한다. 반추와 물임을 통한 에너지 충전방식으로 인해 조용하고 감성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심리적 이완을 즐기는 내향형이다.</p> <p>남과 맞서기 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이다.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며 공동체 정신과 동료애를 중요시한다. 과업지향성이 강한 환경을 싫어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집중력과 적응능력이 좋아진다. 대인관계가 넓지는 않지만 친절하다는 평을 듣는다.</p> <p>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친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관계가 형성되면 스스럼없이 대하고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싶어 한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도 싫다는 의사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 표현은 적지만 섬세한 성격이다.</p>